

책자형 선거공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산군의회의원선거 금산군가선거구  
(금산읍·부리면·남일면·남이면)

**44년 긴 세월 방범대원**으로

군민이 잠든시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봉사**를 해왔던

**심정수**는 가난한 자의

이웃이며 억눌린 자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바로 알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현키 위해

피와 땀과 정열을 바치겠습니다.

**[경력]**

(현) 대전편입 추진위원장

(현) 금산군의회 운영위원장

(전) 충남도의회 행자위원장

(전) 친박연대 충남도당위원장

(전) 인삼발전협의회 상임교문

(전) 금산희망포럼 대표

(전) 남일 향우회장(재금)



**6**

평소 발로 똥

무소속

**심정수**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금산군의회의원선거 (금산군가선거구)

##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6	무소속	심정수	남	1952.06.01 (74세)	정치인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농학과 3학년 재적 (1973. 3. 2~ 1978. 5. 15.)	(전)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현) 금산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사실혼)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60,102	117,082	43,020	0	장남 : 고지거부	육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 : 육군 병장(만기전역)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2,367	0	0	- 농어촌정비법위반 농지법위반 산지관리 법위반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3,000,000원 (2023. 12. 22)
후보자	138	0	0	
배우자	0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2,229	0	0	

## 4. 소명서

40여년간 방치한 휴작지 종토에 영농을 해보고자 전문업자에게 정리를 의뢰하였으나 과다공사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여 즉시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장마수해상습지 응급복구 하였습니다.

# 금산이 살 길은 "대전 편입"입니다!

## 금산군 대전광역시 편입 궁금한 점

### 좋아지는 점

1. 국가첨단산업, 대기업, 과학벨트산업 등등 (아노 반도체 300만평 가능)
2. 인구 10년내 15만명 예상됩니다.
3. 자립도 및 예산 4배이상 증가로 아동, 여성, 교육, 노인복지 혜택이 훨씬 좋아집니다.
4. 전철(도시철도)종점 유치와 대전 좌석버스 40여대 이상 금산 전지역 통행됩니다.
5. 개발부담금 2천억 요청 재래시장 재개발 및 주상복합아파트 가능해 집니다.
6.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확실 합니다.
7. 학구해제로 대전 이사부담 없어짐.(오히려 농어촌 특례 때문에 금산고교 일류 입시 학교로 전환 됩니다.)
8. 대전에서 기대하는 금산의 전원, 관광, 산업, 주거, 과학용지 등 국책 사업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지가 금산이기 때문입니다.

### 우려되는 점

1. 세금인상(구 편입 아니고 군 편입으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 혐오시설 걱정 않아도 됩니다.(금산 자체 쓰레기장 설치도 힘든데 오히려 대전에서 금산을 상류지역으로써 청정지역으로 가꾸겠다는데 쓰레기 혐오시설 대전으로 가져가 겠다고함. 대전 금고동에 100년이상 사용이가능한 쓰레기장이 있음)
3. 농민혜택 훨씬 좋아집니다.
4. 광역 자립도 3배, 광역 특산품 (인삼, 약초)등 모든 농업예산 훨씬 좋아진다.

## 강한추진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임기4년! 강한추진력! 심정수가**  
약속한 금산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공약 **모두해결!** 했습니다!

1. 소상공인 금산군 연합회 창설 **해결**
2. 신용보증재단 금산 출장소 설치 **해결**
3. 이자 3%, 2%대를 1%대로 하향 **해결**
4. 코로나 이후 자영업장 소생 지원금 요구 **해결**
5. 금산 소상공인 알선 자금 확대를 위해 매년 6억 출연 **해결**
6. 택배비 지원 일부 **해결**

금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금산시니어클럽 4년의 **각고 끝에 공약 해결!**

노인 및 사회활동 일자리  
심정수 의원이 지원사업  
22가지 **740**개  
일자리 해결했습니다!



# 대전·금산 직행버스 대전역 경유 심정수 의원 10대공약 해결!

운행개시 : 2026. 04. 07.



## 금산시외버스 대전역 경유



금산터미널 ↔ 대전복합터미널

충무고속 | 번호 34회(06-10-21-20) | 배차간격 20-40분

대전역 동광장 주유소 앞

금산군 (주)충부고속 대전복합터미널



금산출신 정청래 (현)집권여당 대표)를 금산 대전편입추진위원회로 초청하였고, 황명선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하여 여론을 확실히 알고싶다고 했으며 여론이 높으면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금년 여론조사 2,200만원 긴급예산(의회) 준비완료!**  
**반드시 심정수가 당선되어야 집행 가능!!**

# 우리도 활기찬 농촌건설로 골고루 [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할 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은 행정구역 변경 10여년후 인구 20~30만명 재정자립도 약50% 거의 두세배 증가했다. 시내버스 및 전철노선 신설과 택시운행 영역해제 등으로 대중교통 넓어지고 학구문제 해제되어 젊은인구 유입되면서 지역이 활기넘치게 되었고 자립화가 증대되면서 복지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대기업 산업단지 유치와 대단위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휴양시설과 레저타운건설 최첨단 하이테크산업 120만평의 대규모 쌍용 자동차공장 건설, 5만여평의 가스발전소 건립으로 매년 세수증대가 됐다고 한다.

금산의 경우 이런지역에 비해 상하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대전이 만수위에 달해 더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익도 많을 수 있다.

과거 대덕군의 경우 군자체가 기존군이 누렸던 특성을 모두 포기하고 대전과 통합했지만 우리는 기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군"을 유지하기 때문에 단점이 거의 없다. 기타 문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에는 통합 단서내용을 법률에 의해 삽입하면 된다.

# 변호사 선임한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한 사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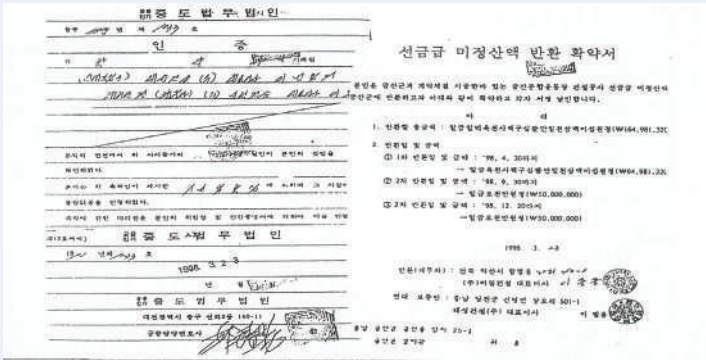
## [ 심정수의원의 묘한 해결책으로 해결 ]

### 군청 재무관리 사고 『해결』

억대의 회수불능 공사 선급금 미정산액 반환 받게돼  
 군의회 심정수 의원의 끈질긴 추궁과 해결 요구 끝에

94년도 미립건설 부도이후 선급금 반환소송의 패소까지 겹쳐 회수 불능에 의한 미결사항으로 남을뻔해

▶ 수 소문 끝에 받아 낸 시공회사의 반환 약속과 연대



으로 빠져 버릴 뻔 했다.

2억여원을 날리고 찾겠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쉽게 포기하려는 행정과 억대의 금융사고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감사기관에게 기관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기강이 흔들리고 책임자들이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근무자세를 취했다면 크게 반성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거액의 재무 사고를 간단한 훈계조치로 매듭지으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운동장 위치 선정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을 당시 94년 11월 (주)미립건설에게 선급금 3억1천3백89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8월 21일 부도가 났고 두 달후 계약해제가 되었으며 이 부도 사실이 본보에서도 보도된 사실도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선급이행 보증기간 95년 1월 30일을 넘겨 주어 회수도 못하고 보증회사 책임 마저도 넘겨주고 말았다.

뒤늦게야 행정에서 대책에 나섰지만 지급거절 및 보증의무에 거부를 당하자 95년도 12월 변호사 선임한 후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원고의 청구가 기각으로 패소당하고 포기했던 사건이다.

공설운동장 건립당시 건설회사 부도로 선급금 3억여원중 미회수금 1억6천5백여만원과 소송비용 6백여만원을 날리고도 영원히 묻혀 버릴뻔했던 사건이 해결되게 되었다.

군의회 요전사무감사에서 의 지적과 본보(금산신문 제266호) 기사와 관련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은 이사건 해결을 위해 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거듭 요청, 진상 조사를 위한 의원 비상소집이 이어지는 등 수차례 간담회에서 안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끝에 해결여부를 집행부에 재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최종 기회를 주기도 했다.

군 재무과에서는 긴급히 전국으로 수소문한 끝에 전북익산에서 당시 시공업자를 찾아내 선급금 반환해 줄 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호소끝에 약속을 받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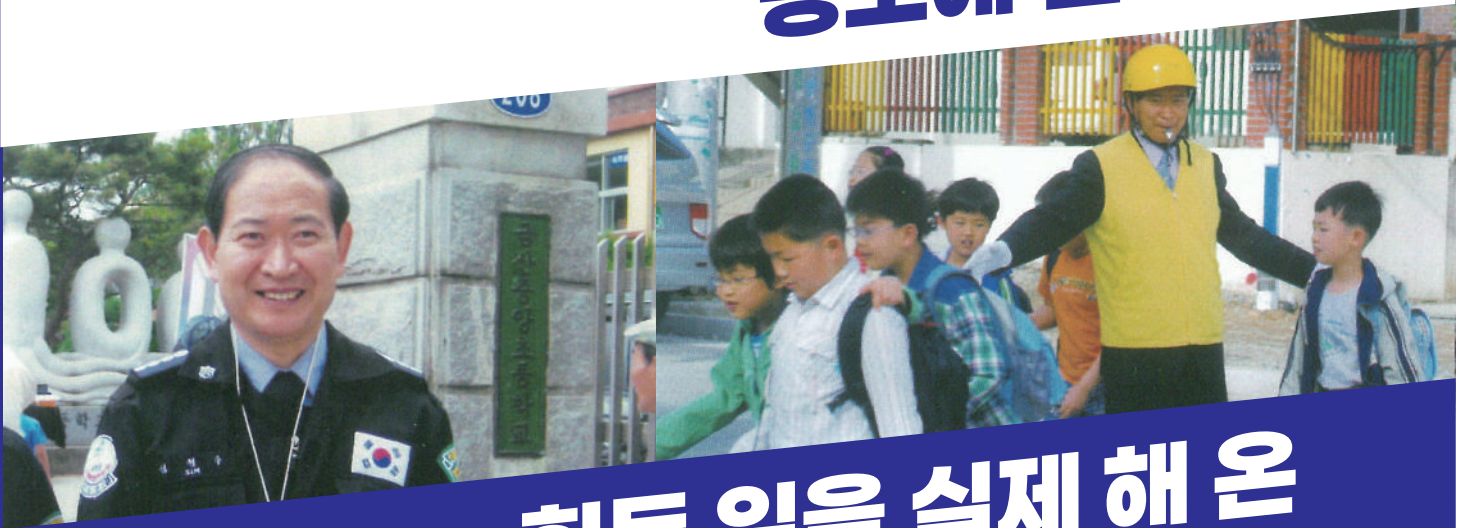
회사측에서는 미정산액을 최대한 노력해서 완납해 줄것을 3회 완불조건으로 약속해서 완납해 줄것을 3회 완불조건으로 약속받음과 동시에 98년 4월 30일에 1차 반환일로 정하여 6천4백98만 1천3백20원을 약속받고, 98년 9월 30일까지 2차 반환일로 정하여 5천만원의 약속받았으며 연말에 3차 5천만원 반환일로 하여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 받았다.

이렇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서를 받으면서 당진군 소재 태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각서를 받음과 동시에 공증까지 확인 받아 해결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련자(군수, 부군수, 재무과장 등) 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일부 군의원이 없었다면 엄청난 혈세가 축나는 사건이 영원히 미궁

**과거 군의원(초선당시) 없어진 수십억 각종 군민혈세를 찾아내어 해결했었습니다! (횡령사건)**

# 선거때만 나타난 사람이 아닌 평소에 댄 사람!



## 힘든 일을 실제 해 온

무소속  
군의원 후보

# 심정수

그동안 착실한 의정활동 외에도 새벽 5시부터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집수리, 목욕, 빨래 등을 돌보며 교통정리, 자율방범, 환경보전 사업등을 하며 서민들의 아프고 가려운곳 속 시원하게 풀어들렸던 날이 매우 보람스러웠습니다.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	무소속	심정수
000	000	

투표관리관



이 공보물은「공직선거법」제65조에 따라 제작된 것입니다.